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쌍요품(雙要品) ②

不好責彼 불호책피
務自修身 무자성신
如有如此 여유지차
永滅無患 영멸무환

계율의 뜻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마음을 향복 받아 스스로 조절하면
이는 법의 입가에 알맞는다

以眞爲眞 이진위위
以僞爲眞 이위위진
是爲正計 시위정계
不得眞利 부득진리

남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함께 제 몸을 살펴라
이것을 잘 알기만 하면
영원히 번뇌사라져 근심 없으리라

참인 것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인 것을 참이라 하면
이는 사뭇 계교이라
끝내 참이익을 얻지 못한다

行見身淨 행견신정
不攝諸根 불섭제근
飲食不節 음식부절
漫漶法弱 만타법약
爲邪所汚 위사소계
如風靡草 여풍미초

知眞爲眞 지진위진
見僞爲眞 견위위진
是爲正計 시위정계
必得眞利 필득진리

이 몸을 깨끗한 것으로 보아
육근을 제대로 다잡지 않으며
먹고 마심에 절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삿됨에 억눌리게 된다
바람에 풀이 휩쓸리듯이

참을 알아 참으로 삼고
거짓을 보고 거짓인줄 알면
이는 바른 견해이라
반드시 참이익을 얻으리라

觀身不淨 관신부정
能攝諸根 능섭제근
食知節度 식지절도
常樂精進 상락정진

蓋覆不密 개옥불밀
天雨則漏 천우즉루
意不修行 의불유행
淫洩爲穿 음일위천

지붕잇기를 성글게 하면

지붕 촘촘히 이으면 비 새지 않듯

마음 다잡으면 탐욕 넘치지 않네

不爲邪動 불위사동
如風大山 여풍대산

비가올때 곧 세계된다
마음 쓸쓸이를 조심스레 하지 않으면
탐욕이 넘쳐 구멍이 뚫린다

사람의 몸을 부정하다고 보아
능히 육근을 잘 조속하여
먹고 마심에 절제할 줄 알고
항상 씩없는 공부를 즐기면
삿됨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바람 앞에 큰 산이 막아선듯이

蓋覆善密 개옥선밀
雨則不漏 우즉불루
攝意修行 섭의유행
淫洩不生 음일불생

不吐毒態 불토독태
慈心調伏 육심치법
未能自調 미능자조
不感法衣 불응법의

지붕 잇기를 촘촘히 하면
비가 와도 새지 않는다
마음을 다잡아 생각하고 행하면
탐욕은 넘쳐 나질 않는다

마음의 독한 태도 내뻗지 않고
욕심따라 뒤쫓아 치달으면서
스스로를 잘 조속하지 못하면
법외에 맞지 않는 것이다

鄙夫染人 비부염인
如近染物 여근취물
漸迷習非 점미습비
不覺成惡 부각성악

마음이 비루한 이가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내는 물건을 가까이 한 것같이
점차로 미혹하여 비법을 익히고
마지 못하는 사이에 악을 이룬다.

能吐毒態 능토독태
戒意安靜 계의안정
降心已調 함심기조
此感法衣 차응법의

마음의 독을 능히 토해내고

龍眼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큰 스님 수행한담

법홍스님 (조계총림 동당)

싯달타가 사문유관후 출가한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사문유관합니다
이웃보면 내모습 알수 있으니까요

내 속명이 주흥(柱興)입니다. 어릴 때
나이많은 분들이 빨리 부른다 보면 '중
아'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나중에 중이
되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리웠나
봅니다. 내가 대학교(고려대 국문과)를 졸업
하고 나서 출가했지만 어릴때부터 불교
와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김용사 강사로 계셨
어요. 한학자였던 아버지께서는 몸이 약
해 수양을 위해 늘 절에 가 계셨고, 집에
서도 평소 <반야심경>을 독송하곤 하셨습니다.
어릴때 아버지가 외우시던 <반야
심경>은 참 듣기 좋았습니다. 속가 우리
집이 잘 살았어요. 지주였는데 종년이나
수해 들면 기민(飢民)을 많이 했어요. 3
대 적선해야 중이 하나 나는데 내가
스님이 된 것은 불교를 신봉했던 집안
덕분인가 합니다. 나도 어릴때부터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절에만 가면 부처님
께 절을 꾸벅꾸벅 하곤 했어요.
6.25 전쟁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
니다. 인민군을 만나 의용군으로 끌려갈
위기도 몇번 맞닥뜨렸지요. 그러나 우리
집이 마을사람들에게 적선을 많이 해 덕
을 쌓아서인지 마을사람들이 감싸주고
는 관세음보살을 염송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위기에서 벗어나곤 했습니다. 청
주에서 중학교 다닐때도 학교 갈 때 관
세음보살, 올 때 관세음보살을 늘 염송했
어요. 고려대 근처에 개운사가 있어요.
학교문 들어가며 개운사 향에 절하고, 나
올 때 절하는 것을 거르지 않으니까 친
구들이 젊은 사람이 무슨 절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흥보더라고요. 시내 다니
다가도 절만 보이면 들어가서 절했어요.
1959년에 동화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
로 출가를 했어요. 효봉스님 권속들이 날
효봉스님에게 데려가자 스님이 대답 "어
허, 얼굴이 중 상(像)인데 언제 이제까지
속가에 있었느냐" 하십니다. 또 생년월일
을 물으시더군요. 신미생 유월달이던 했
더니, "옳다 됐다. 신미생 유월달이면 사
주에 불도(佛道)가 들었다"고 하시면서
패히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 곳에 다녔고 많은 스님들을 만나
보았지만 효봉스님만한 대 근기가 없습
니다. 스님은 "중이 됐으면 참선해야지

이 길밖에 더 있나. 강사(講師)가 죽을
때 후회하고 죽는다" 하셨습니다. 팔만대장
경을 거꾸로 외고 바로 외봤자 생사해탈
하느냐, 기도와 주력은 모두 제 욕심때문
에 한다, 수좌는 모름지기 화두를 들어야
한다, 참선하다 죽으면 절대 지옥가지 않
으니 힘써 정진하라,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경제체

- 31년 출복 괴산 신
- 58년 고려대 국문과 졸
- 59년 동화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 74~77년 송광사 주지 역임
- 80~81년 불교정화진흥회의 사무총장
-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상원사 망월사 김용사 묘관음사 등 제법선원 인거
- 저서 <佛의 세계> <戒律綱要> 등
- 현재 송광사 화엄전에 주석



“부부·형제·이웃·동족은
몇천겁 인연의 결과이니
서로 돕고 사는것은 당연지사”

3화를 닦아서 계행을 청정히 지키는데서
정력(定力)이 생기고 정(定)중에 지혜가
밝아져서 상생(上生)할데 계정에 3화
를 닦아서 생사해탈하는 종교는 불교밖
에 없다는 것이지요. 효봉스님은 워낙 원
만하고 대인이라 남이 다루는 것을 보면
그냥 웃어버립니다. 또 검소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초가 달 때 생기는 훗날을 그
냥 버리는 법이 없어요. 굶어서 모아 집
사에 담아 심지를 막아 불을 밝힙니다.
절레도 너무 짜면 떨어진다고 꼭 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절을 많이
짓고 법문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고불

고조사가 다 말씀하시길 정혜생수 되지
않으면 죽을 때 생사해탈되지 않는다. 그
스님이 아무리 이름이 나고 큰스님이라
도 마지막의 열반성정을 보아야 한다. 근
래에 열반성정은 방한안스님이 가장 낫
다"고 늘 말씀 하셨습니다.
서산스님의 <선가구감>에도 이렇게 가
르셨습니다.
총명한 지혜가 업의 힘을 능히 막을
수 없고 마른 지혜만 갖고는 윤회의 고
통을 면할 수 없다. 말을 잘 지껄이거나
설법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애걸해도
경계에 부딪치면 탁 막혀버리는 것이라
고 했습니다. 생사가 없는 이치를 알더라

도 공부가 덜 되면 생사를 해탈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경허스님도 문자만 깨
달아서는 생사해탈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송광사 수련대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내가 <법구경>을 강의하는데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고 예술인은 예술의 미를
창조하고 정치가는 정치하고 다 바쁘게
살지만 그러나 이런 일상사만 갖고는 우
리 존재의 근원을 모르고 무지의 일생을
살게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깨쳐야 생
사의 근원을 알게되고 선악의 근본을 알
게되고 고(苦)와 나(樂)이 없어져 우주
와 내가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닫게 되면
생사가 해탈되어 영원히 사는 이치를 알
게 됩니다.
요새는 서양인들도 절에 와 참선을 배
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0세기 들어 인류가 서로 경쟁하듯이
발명하는 것이 핵무기입니다. 인간은 인간
이 만든 핵무기로 인해 전율과 공포감을
느낍니다. 자꾸 핵무기같은 것을 발명해

생활속의 불교 125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한 생각의 힘

마음 도리를 모르면 백 보를 뛰어도 증중결
음에 불과하고 이 도리를 알면 얇은 자리에서
한생각에 천만리를 드나들 수 있다.
마음이 주인이자 부처이므로 한생각 일으키
면 문수요 음직이든 보현인 것이나 한마음 자
리에서는 부처·문수·보현이 따로 없다.

만 마음의 도리에서 보면 나는 우주의 중심이
자 우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고로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다해도 몸이 아닌 마음으로는 얇
은 방석에 불과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내 마
음 안에 다 집어넣고 빈 자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생각이 곧 법이라 마음의 중심을 쥐고 한
생각 낼 때는 우주법계가 들썩들썩하는 이치가
있다. 마음 도리를 알면 우주 방방곡곡이 내 얇
은 방석이라 손 발이 두루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마음 세계에서 형상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커도 다 안을 수 있고 아무리
작아도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역시 거리도 문제
가 되질 않는다. 멀다고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
고 가깝다고 더 빠르지도 않다. 그냥 찰나 간에
다 포섭할 수가 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저 하늘 어디 마나
면 별이 우주의 중심인데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니 어찌 크다 작다. 멀다 가깝다를 말하
겠는가. 다만 한생각 일어나는 그 찰나에 두루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고 할 뿐이다. 그것도
빛보다 빠르게, 그리고 굳이 시간으로 말한다면
동시에 우주 구석구석까지 한생각의 파동을 전
한다고 말해진다.

아니, 중심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곧 우주요
우주가 곧 나이다. 다죽일 일죽다(多即一 一即
多), 불가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한다. 전체와 하
나는 둘이 아니라고 한다. 바닷물을 다 마셔보
지 않고 단 한방울로도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
처럼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

둥근 공의 표면에 아무데고 한 점을 찍어보
자. 그 점으로부터 공의 표면을 따라 사방 아
무 방향으로든 선을 그으면 그 거리는 언제나
같다. 그와같이 나는 언제나 우주의 중심점이



된다.
또 우주는 내가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한
다. 본질에 있어서는 그림자같은 물거품 같은
세계이지만 우주는 나의 인식세계에서 내가 인
식하는 동안에만 하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내가 눈을 감으면 우주는 사라진다. 내가 없
다면 우주는 다 무엇이었겠는가. 고로 나는 우주
의 중심점이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그 파동은
수면을 타고 호수 전체로 퍼져 나간다. 돌이 떨
어진 그 자리가 파문의 중심점이다.

나의 한 생각은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우주 법계에 파동을 일으킨다.
그 파동은 나를 중심점으로하여 전 법계로
퍼져간다. 찰나에 빛보다 빠르게 전개된다. 내
한 생각에 우주가 들썩거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손가락 하나를 들어 우주를 떠받친
다고 한다. 내 한생각이 그대로 법이라고 한다.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요 내가 곧 우주의
주인임을 믿는가. 아니면 보잘 것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부처님께서 일찍이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외치

셨다. 내가 곧 중심이요 내가 곧 주인임을 설하
신 것이다. 내 한 생각이 곧 법이요 내 한생각
의 힘이 우주를 들썩거리게 한다는 법문을 하
신 것이다.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의 중심임을 갈파하셨
고 땅을 가리키며 땅의 주인임을 증명하셨다.그
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스스로를 이
육신에 갇힌 왜소한 존재로 생각하고 만다. 믿
음이 약한 탓이다. 마음의 도리, 마음의 힘을 믿
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임을 믿지 못하면 고작 하인 노릇밖에
할 게 없다. 경계에 짓눌리고 운명에 끌려다니
는 종 노릇밖에 못한다.
한 생각이 곧 법임을 믿지 못하면 기껏해야
남에게 의지하고 주변 상황에 끌려다니는 존재
에 불과하게 된다.

내가 주인임을 굳게 믿자. 내가 중심임을 굳
게 믿자. 그러면 나의 한생각은 바닷물처럼 우
주라는 호수에 큰 파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협찬 : 유 화 순